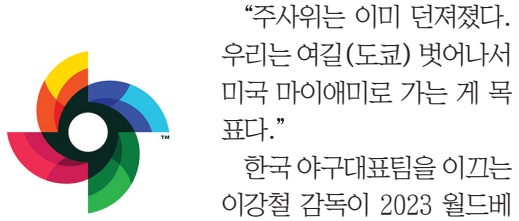


이강철 감독 “도쿄 벗어나 마이애미 가는 게 목표”

4강 진출 목표...“준비 잘 했다, 오늘 호주와의 1차전 반드시 승리” 주장 김현수 “이기는 경기 하겠다” 양현종 “첫 경기 분위기 살려야”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우리는 여길(도쿄) 벗어나서 미국 마이애미로 가는 게 목표다.”

한국 야구대표팀을 이끄는 이강철 감독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호주와 1차전을 하루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

이 감독은 8일(이하 한국시간)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준비를 잘 해왔다”라며 “선수들도 자신감 있게 준비했고 비장한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라운드에서 일본, 호주, 체코, 중국과 함께 B조에 편성된 한국은 9일 낮 12시 열리는 호주와 1차전이 8강 진출의 분수령이다.

이강철 감독은 “최근 호주를 상대로 8연승을 거둔 것은 생각 안 한다”라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건 좋지만, 최근 2년간(한국의) 국제대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KBO리그를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를 상대로 방심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력상 나와 있는 통계는 우리가 우위지만 야구는 모르는 거다”라고 말한 이 감독은 “절대 강자를 상대로 싸운다는 생각으로 임할 것이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강조했다.

B조 본선 1라운드를 앞두고 이날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의 시선은 조별리그 첫판 상대인 호주로 고정했다.

대표팀 주장 김현수(LG 트윈스)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준비는 잘했다”면서 “준비한 대로 안 되더라도 꼭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솔한 국제 경기에 출전했던 왼손 투수 양현종(KIA 타이거즈)도 “첫 경기가 좋은 분위기로 결과가 나온다면 대회 끝날 때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해야 하는 경기”라고 호주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무심코 인사할 정도로 호주 선수들의 영향을 솔하게 둘러봤다.

김현수는 “전력 분석했을 때는 까다로운 투수가 많은 것 같다. 호주는 좌완이 많고 까다로운 거 같아서 잘 준비해야 한다. 무조건 이기겠다”고 했고, 양현종은 “호주에는 힘 있는 선수도 많고 정교한 타자도 많다. 야구라는 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스포츠다. 전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한국 야구 부흥의 임무를 짊어진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나성범은 “(주장) 현수 형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훈련을 해왔다. 저희가 준비한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이 10번째 국제 대회인 김현수는 “많이 나왔는데도 제가 가장 긴장하는 거 같다”는 말로 고충을 토로했다.

목표로 한 4강에 진출하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들은 미국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호주전만을 생각하고 준비한다.

양현종은 “미국에 가는 게 목표지만 한 명도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할 거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다. 그걸 치르고 난 뒤에는 그다음 경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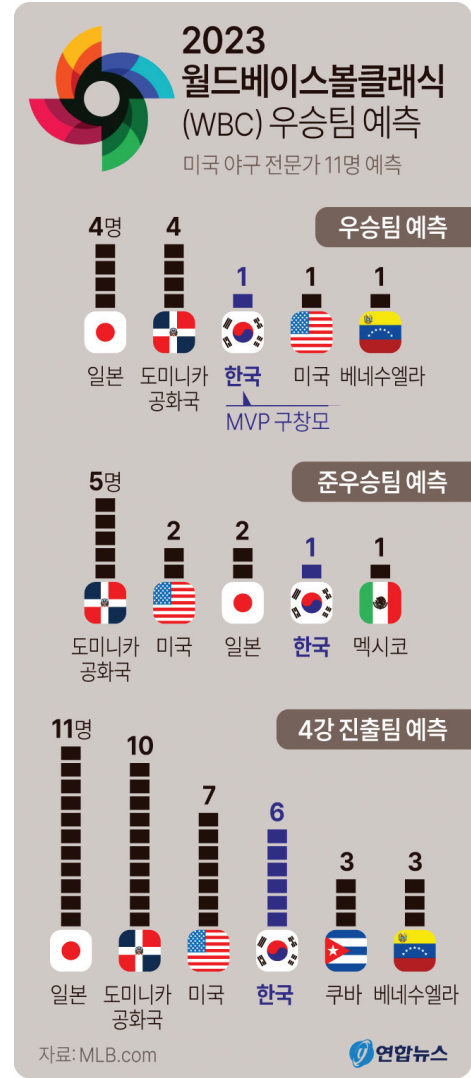
선수들의 각오대로 이번 WBC는 결과를 내야 하는 대회다.

/연합뉴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개막한 8일 오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강철 감독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로클린

호주, 오늘 한국전 선발 투수 좌완 울로클린 예고

9일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첫판에서 한국 야구대표팀과 8강 티켓을 놓고 맞붙는 호주가 한국전 선발 투수로 장신 좌완 잭 울로클린을 예고했다.

데이브 윌슨 호주 야구대표팀 감독은 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B조 출전 기자회견에서 선발 투수를 먼저 공개했다.

2000년 태어난 울로클린은 현재 미국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마이너리그팀 소속 투수로 신장 1m 96cm, 체중 101kg으로 뛰어난 신체 조건을 자랑한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주로 싱글A에서 활약했다. 4시즌 통산 61경기를 뛰면서 33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섰다.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은 9승 8패 평균자책점 3.99다.

겨울에는 고국인 호주로 돌아와 호주프로야구 리그(ABL)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에 몸담았다.

/연합뉴스

지난 1월 막을 내린 2022-2023시즌에는 호주 리그 7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3.27을 남겼다.

한국 대표팀은 장신 좌완 울로클린이 한국전 선발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해 전력 분석에 공을 들였다.

호주 야구대표팀 투수 가운데 KBO리그 경험이 있어 한국전 후보로 거론됐던 우완 워릭 소폴드(한국에서 활동 당시는 워릭 서폴드로 등록)는 불펜에서 대기한다.

다만 울로클린이 선발로 등판해도 긴 이닝을 소화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만큼, 소폴드가 승부처에 언제든지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호주에 앞서 기자회견을 한 이강철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호주전 선발을 공개하지 않았다.

WBC 규정은 경기 전날 오후 9시까지 WBC 사무국에 선발 투수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 오사카돔서 ‘예방주사’... 도쿄돔 적응 ‘이상 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에 속한 한국과 호주, 체코, 일본, 중국 대표팀은 8일 공식 훈련을 통해 대회에 열릴 도쿄돔을 짧게 경험했다.

적은 여부가 경기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대회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그라운드를 밟을 기회는 중요하다.

B조 5개국 가운데 가장 이른 오전 9시 50분부터 훈련하도록 시간을 배정받은 한국은 1시간 40분 동안 타격과 수비 등 가벼운 훈련을 소화했다.

9일 호주전 유력 선발 투수로 거론되는 잠수함 투수 고영표(KT wiz)는 3루 더그아웃 쪽에서 캐치볼로 마지막 점검을 했다.

내야수들과 평소 훈련을 소화한 김민재 대표팀 1루 겸 수비 코치는 훈련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기서도 실책하면 그건 실력”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표팀이 실책을 쏟아낸 오사카돔과 달리 환경 탓을 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라운드 상태가 좋아서 수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의미다.

도쿄돔은 홈플레이트와 마운드, 그리고 3개의 베이스 주변에만 흙이 깔린 인조 잔디 구장이다.

선수들이 ‘양탄자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라운드 상태가 푹신푹신해 타구 속도가 느려지는 게 특징이다.

내야수에 그라운드 상태가 중요한 것처럼, 투수에게는 마운드 적응이 중요하다.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미끄러운지 상태를 파악해야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해외캠프 마무리 오늘 귀국

‘호랑이 군단’이 3년 만의 해외 캠프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오카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했던 KIA가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1월 30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선수단은 2월 1일부터 애리조나 투산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1차 캠프를 진행했다. 체력과 기술 훈련을 하면서 몸을 만든 KIA는 2월 19일 WBC 대한민국의 대표팀을 상대로 첫 실전을 진행했다.

1차 캠프 막판 비와 추위로 고전하고 LA 공장에서 눈보라를 만나 아찔한 순간도 경험했지만 2차 오카나와 캠프는 최상의 날씨 속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LA 불사조’ 여파로 2월 28일 예정됐던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는 취소됐지만 1일 삼성전을 시작으로 3일 롯데, 5일 삼성, 7일 한화를 상대로 연달아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감각도 끌어올렸다.

타이거즈의 새 얼굴이 된 좌완 사이드암 김대우는 이번 캠프에서 가장 눈길을 끈 선수 중 한 명이었다.

박동원의 FA 보상 선수로 팀에 합류한 그는 실력과 리더십으로 이내 마운드의 한 축이 됐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선수단 훈련 분위기를 이끌며

솔선수범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팀 리더상’ 주인공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투수 이준영, 외야수 김호영도 ‘팀 리더상’을 받았다.

투수 최지민, 내야수 변우혁, 김도영은 성실한 훈련 태도를 바탕으로 미래 주역으로 도약할 선수에게 주어지는 ‘팀 미래상’을 공동 수상했다.

캠프를 지휘한 김중국 감독은 “3년 만의 해외 스프링캠프였는데 큰 부상 선수 없이 캠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팀스 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 한 이번 캠프에서 투타 모두 젊은 선수들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서 만족스럽게 생

각한다”며 “미국과 일본으로 이어진 긴 캠프를 잘 소화해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시범경기까지 잘 준비해서 팬 여러분들께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 여행을 마무리한 선수단은 귀국 후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엔트리 경쟁에 나선다.

시범 경기 개막에 앞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하면서 부족했던 실전을 채운다. KIA는 앞서 날씨 영향으로 캠프에서 예정됐던 연습경기 3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이어 KIA는 13일 대전에서 시범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시범경기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며 총 14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KIA는 한화를 상대로 개막 2연전을 치른 뒤 고척으로 이동해 키움(15·16일)과 대결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8일 일본 오카나와 킨 구장에서 스프링캠프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